

도시재생 정책 동향

Urban Regeneration Trends



기사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천안시·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센터 신축' 업무협약

천안시 | 2026. 8. 6.

충남 천안시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2026년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사업비 지원과 모니터링,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천안시는 센터 건립과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을 맡는다. 시는 중앙자활자금 10억원과 도시재생과의 충청남도 빈집정비 2차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확보한 도·시비 등 총 26억 원을 동남구 구성동 자활센터 신축에 투입한다.

아산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연계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아산시 | 2026. 8. 3.

충남 아산시가 도시재생 거점시설과 지역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 주민 참여형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원도심 활력 제고에 나섰다. 아산시는 '2026년 아산시 주민역량강화사업(도시재생대학)'의 일환으로 지난달 31일 서로돌봄공동센터에서 온양1동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행운을 담은 명태 도어벨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온양원도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기획·운영했다.

예산 원도심 빈 점포, 미식·연극 품은 '새참극장'으로 재탄생

예산군 | 2026. 8. 5.

충남 예산군은 지역 창작 콘텐츠 기업 고로컬과 함께 원도심 빈 점포를 활용한 로컬 체험 콘텐츠 '새참극장: 들어유주막'을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 오후 1시와 5시, '로컬안내소 고로컬'에서 정기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공연이 열리는 '로컬안내소 고로컬'은 예산군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원도심 빈 점포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거점 공간이다.